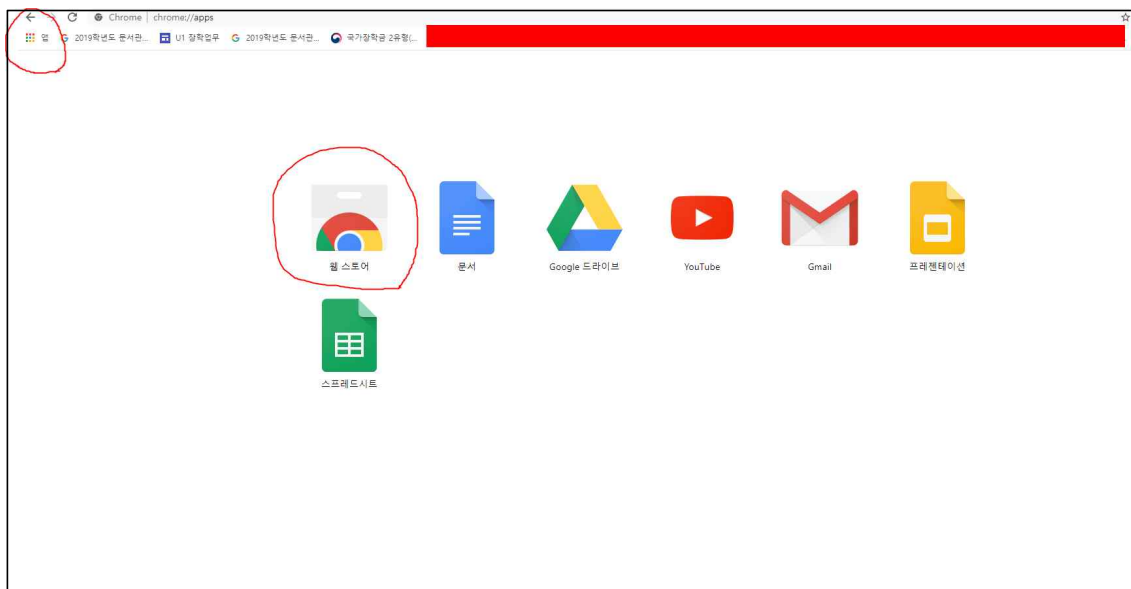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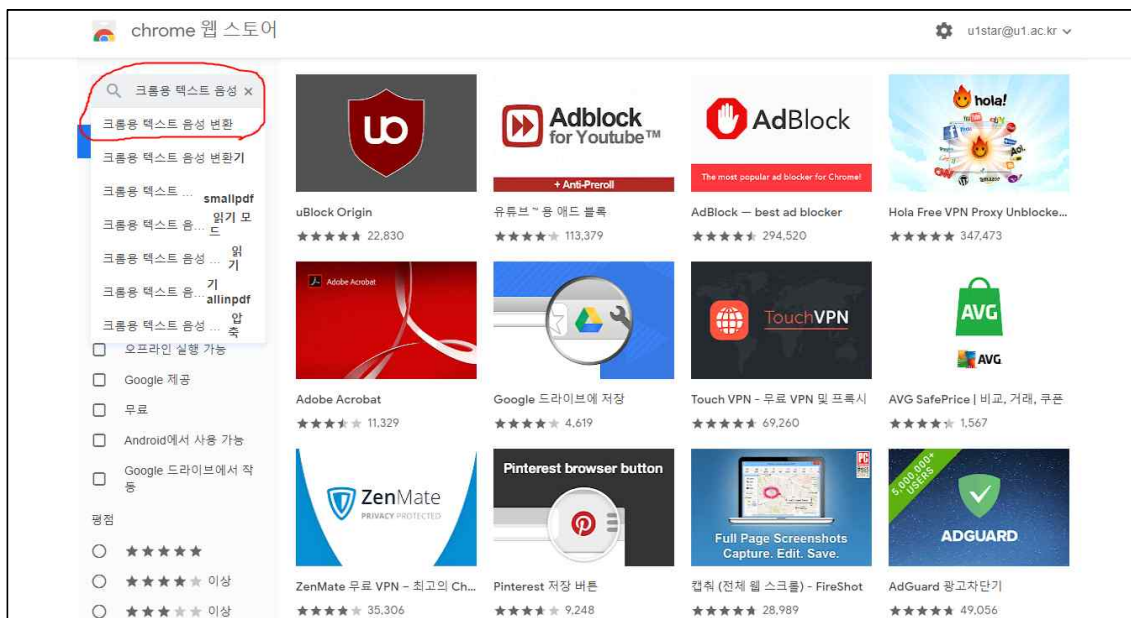
인터넷 자료 음성으로 듣기 활용

○ 프로그램 : 크롬 / 크롬 확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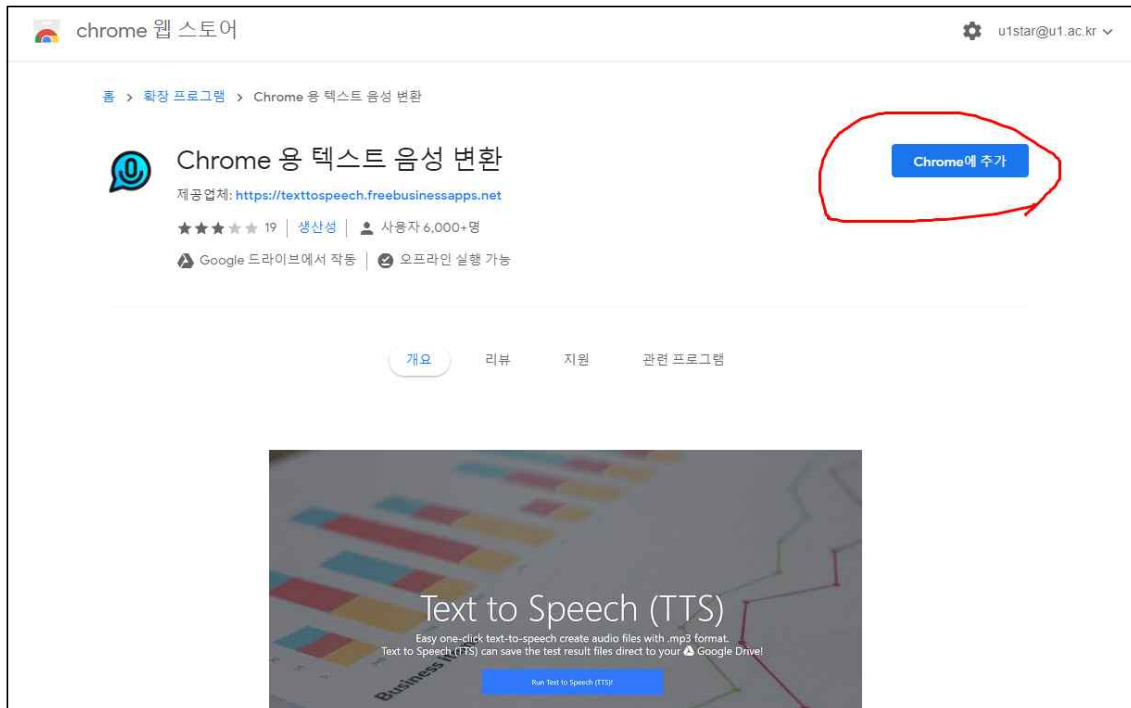
1. 구글 크롬 앱스토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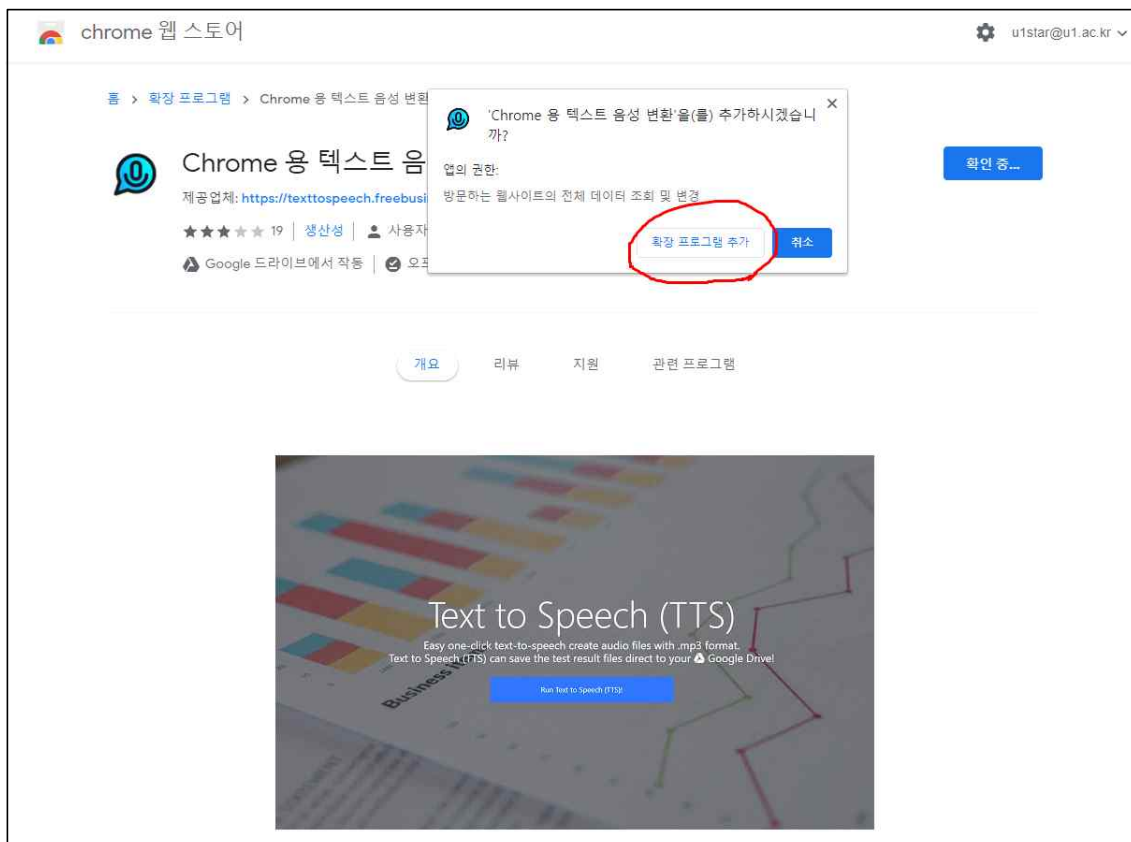
2. 왼쪽 위 검색 창에 “크롬용 텍스트 음성 변환” 이라고 입력 후 검색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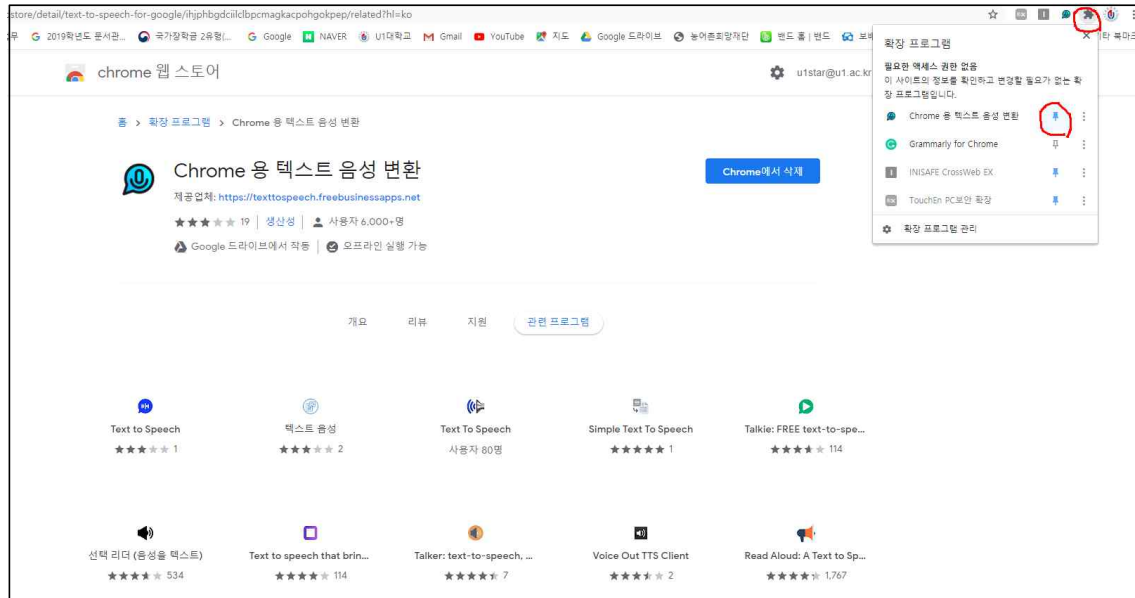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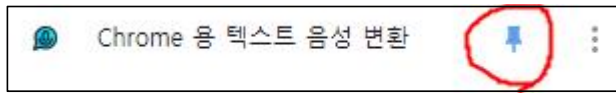
3.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검색되면 오른쪽 [Chrome에 추가] 버튼 마우스 클릭



4. 작은 창이 뜨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마우스 클릭



5. 오른쪽 위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이 [Chrome 용 텍스트 음성 변환] 선택




여기까지 설치가 되었으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6. 사용방법

아래와 같이 텍스트를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 한 후 [음성 아이콘]  을 클릭하면 음성으로 기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한겨레



“환경 고민않고 과다소비…200만원 벌며 350만원 쓰는 꼴”



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한겨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만난 타일러는 “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느 강연에서 한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다 나온 말이다. 그는 “이 말을 한 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더 적극적으로 이 꿈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미래에 어느 지역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덜 보게 될까’란 생각부터 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걸까?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32)의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사실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고 천연 고체 비누를 사용하며 스트레스 해소는 한강 달리기로 푸는 ‘환경 덕후’이다.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WWF) 홍보대사이며 2018년 5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연 기후위기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